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8  
룻기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룻 기

## Ruth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  
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16)

וַתֹּאמֶר רוּת אֶל-תַּפְּנֵי-בִי לְעֹזְבֵךְ לָשׁוּב מֵאֲחֵרֶיךָ כִּי אֶל-  
אֲשֶׁר תֵּלְכִי אֵלַי וּבְאִשֶׁר תֵּלִינִי אֶלֵּין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 룻기 차례

---

룻기 서론.....	〈14제〉	... 285
제 1 장 룻이 나오미를 따르다.....	〈21제〉	... 288
제 2 장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22제〉	... 294
제 3 장 룻을 위한 나오미의 제안.....	〈15제〉	... 301
제 4 장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15제〉	... 305

## 룻기 특별 자료 차례

---

제 2 장 〈화보 자료〉 곡식 베는 도구.....	300
제 3 장 〈본장의 요절〉.....	304
제 4 장 〈본장의 요절〉.....	309
제 4 장 〈연구 자료〉 수혼(嫂婚) 제도에 대하여.....	310

# 룻기 서론

##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탈무드(Talmud)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본서의 저자로 되어 있다.  
 (2) 한편 호이만(Heumann)은 다윗 왕이 본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또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 히스기야 또는 에스라가 썼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룻기 자체에서는 저자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의 확실한 저자를 알 수 없다.

## 2. ㉠ 본서의 명칭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 ㉠ (1) 본서는 본서의 주인공인 '룻'의 이름에 근거하여 '룻기'라 칭한다.

## 3.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메시아가 출생한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방인인 룻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히기 위해 기록되었다.  
 (2)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시사(示唆)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우리는 이방 여인 룻이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 본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여기에 나타난 사건들은 사사(士師)들이 다스리던 시대, 즉 B. C. 12세기 말엽에 일어난 것들이므로 본서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또한 다윗의 족보(4:18-22)에 솔로몬이 빠진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 왕의 통치 시기, 즉 B. C. 11세기 말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이러한 주장은 본서에 다윗의 족보가 나타나 있고 더불어 모압 여인 룻이 왕의 족보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이스라엘이 모압과 적대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 5. ㉠ 본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 (1)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짧은 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추수 장면, 친족의 권리와 의무, 결혼 풍습 등)을 많이 담고 있다.  
 (2) 또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자연스럽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만민의 구세주' (마 1:21)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3) 그리고 본서는 무사적 신앙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내용을 담고 있는 사사기와는 달리 나약한 한 여인의 선행과 헌신적인 사랑이 믿음의 승리로 이어짐을 보여 주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 6. ㉠ 본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 ㉠ (1) 사사 시대 초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가게 되었다(1:1, 2).  
 (2) 얼마 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으나 그 두 아들도 죽어서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다(1:3-5).  
 (3) 나오미가 모든 희망을 잃고 고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둘째 며느리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녀와 함께 동행하였다(1:6-18).

- (4)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 룻은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셨고(1:19-2:2) 생계를 위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으러 갔다가 그와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2:3-4:13).
- (5) 이와 같이 룻은 비록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헌신적인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위대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됨으로써(4:14-22) 그 계보를 따라 만민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다.

**7.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라.**

- ㉠ (1) 본서는 역사적으로 사사 시대, 즉 ‘사사들이 다스렸던 때’ (1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비교적 초기에 속한다.
- (2) 이러한 근거는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보낸 정탐꾼을 숨겨 준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참조, 수 2:8-21).
- (3) 그러나 이 일이 어느 사사 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8. ㉠ 본서는 구약 정경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 ㉠ (1) 본서는 오경, 선지서, 성문서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세째 부분인 성문서, 즉 <케투빔>에 속한다.
- (2) 그런데 성문서는 다시 지혜서(시가서), 오축(五軸), 역사서로 세분(細分)되는데 본서인 룻기는 오축(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에 속한다.
- (3) 여기에서 오축(五軸)은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으로 이것은 각 절기 때 회당에서 낭송되었는데 그중에서 룻기는 맥추절(오순절)에 낭송되었다.
- (4) 한편 히브리어 성경에는 룻기가 잠인 뒤에 놓여 있고 탈무드에서는 시편 앞에 놓여 있는데 개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70인역(LXX)이나 벌게이트(Vulgate)역 같이 사사기 다음에 놓여 있다.
- (5) 그러나 70인역은 사사기와 룻기를 하나로 묶었고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들이나 초대 교회의 기록들은 이러한 분류에 따라 본서를 인용하였다.

**9. ㉠ 본서에서 찾을 수 있는 윤리적 교훈은 어떤 것인가?**

- ㉠ (1) 본서는 ‘룻’이라는 한 나약한 이방 여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며 선행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믿음의 승리를 다루고 있다.
- (2) 즉 룻은 홀로 남게 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섬김으로써 효성을 다하였다.
- (3) 이러한 효성으로 말미암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다윗의 조상,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 (4) 이러한 룻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섬기며(참조, 마 20:28; 딤후전 6:2; 벧전 1:12) 사랑할 때(마 19:19)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 본서에는 어떠한 신학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가?**

- ㉠ (1) 룻기는 평범한 한 가정의 일을 다루고 있지만 결코 세속적인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대변(代辯)하고 있다.
- (2) 특히 하나님은 인간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철저히 주관(主管)하시지만 그 표현되는 양상은 감추어졌음을 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 (3) 즉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인간사에 나타나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인간에게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4) 또한 본서는 전체가 4막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드라마처럼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에 따른 예정 사상이 나타나 있다.

11. **㉠** 본서의 문학적 특징 및 문체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는 '룻'이라는 한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기(傳記) 문학으로 생각하기 쉽다.  
 (2) 그런데 한글 성경에 의하여 분류하면 역사서에 속하므로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간주할 수도 있다.  
 (3) 그러나 본서는 분명 전기 문학이나 역사적 사실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으며 단지 역사에 나타난, 전기 문학적 성격을 띤 하나의 진실된 이야기(story)이다.  
 (4) 따라서 본서는 다른 문학 작품처럼 언어적 기교도 없이 아주 평이한 문체로 전개되고 있으나 사랑과 헌신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정 다감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5) 문학적 구성 또한 간단하고 평이하며 전반적으로 접속사로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히브리적 구성의 일반적 특징이다.

12. **㉠**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서는 가정 혹은 결혼에 대한 의식 및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서는 '애정의 율법'이라고도 불리워진다.  
 (3) 또한 본서의 중요한 주제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사상을 들 수 있다.

13.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룻의 결심 / 1:1-22  
 ① 엘리멜렉의 사망과 유가족의 실패 / 1:1-5  
 ② 나오미의 귀향 길에 동행한 룻 / 1:6-18  
 ③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 / 1:19-22  
 (2) 룻의 헌신적 생활 / 2:1-23  
 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 / 2:1-3  
 ② 보아스가 룻을 만남 / 2:4-7  
 ③ 보아스가 룻을 보호함 / 2:8-13  
 ④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음 / 2:14-23  
 (3) 룻의 호소 / 3:1-18  
 ① 나오미의 권고 / 3:1-5  
 ② 나오미의 권고에 순종한 룻 / 3:6-9  
 ③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함 / 3:10-18  
 (4) 룻이 받은 상급 / 4:1-22  
 ① 선한 남편 보아스 / 4:1-12  
 ② 아들 오벳을 얻음 / 4:13-17  
 ③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됨 / 4:18-22

14. **㉠** 본서의 중심 귀절은 무엇인가?

- ㉠**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16).

# 제 1 장 룯이 나오미를 따르다

단락구분 1-5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다/6-7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모압 땅을 떠나다/8-15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떠나기를 권고하다/16-18 룯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다/19-22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트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룯이더라 거기 거한지 십 년 즈음에

5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8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니이다

11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12 내 딸들이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면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13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룯은 그를 붙좃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 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니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 나오미가 룯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나 하느니라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동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1)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은 얼마 후 두 아들과 함께 죽었고 (1-5절) 결

국은 나오미와 롯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6-22절).

- (2) 그런데 엘리멜렉 일가(一家)가 이렇게 몰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피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다(13, 20, 21절).
- (3) 한편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룯은 궁지에 빠진 시어머니를 끝내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8-18절).
- (4) 특히 본장의 16,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룯의 신앙 고백은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앙을 나타내 주고 있다.
- (5)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룯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2. **㉠**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에 발생한 '흉년'의 성격은 어떠한가? (1절)

- ㉠** (1) 성경에는 '흉년'이 사람들이 지은 죄 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벌로 묘사된 곳이 많다(레 26:19, 20; 신 28:47-51; 왕하 8:1).
- (2) 그 당시 엘리멜렉 일가가 겪은 흉년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目前)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미디안 군(軍)의 침략을 받아 온 지역이 황폐해졌기 때문이었다(삿 6:2-4).
- (3) 그때에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을 모두 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상 가상(雪上加霜)으로 자연적 재해까지 겹쳤으므로 흉년은 혹심하게 이스라엘의 전역을 덮었던 것이다(참조, 6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자연적 재해로 경고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이러한 이변(異變)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3. **㉠** 본절에 나타난 '유다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2절)

- ㉠** (1) 유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다윗의 고향이며(삼상 16:18)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 (2) 이러한 베들레헴에는 성경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를 간추려서 특징적인 면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징	참 고 귀 절
룯의 베들레헴	호의(好意)의 동리	2:1-23
다윗의 베들레헴	전심 전력의 동리	삼상 16:1-13
세 용사의 베들레헴	헌신의 동리	삼하 23:13-17
미가의 베들레헴	희망의 동리	미 5:2
예수님의 베들레헴	계시의 동리	눅 2:1-20

(3) 이와 같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함께 성경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4. **㉠** '엘리멜렉' 가족의 이름과 그 뜻은 각각 무엇인가? (2절)

- ㉠** (1) '엘리멜렉' 일가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로서 그의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다.
- (2) 먼저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라는 의미이며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기쁜' (참조, 20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 (3) 또한 '말론'은 '보잘것없는'을 말하며 '기론'은 '소멸하는'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 (4) 그런데 이들 일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에 모압으로 피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家長)의 믿음과 판단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 엘리멜렉 일가의 출신지는 어디인가? (2절)**

- ㉠** (1)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2) 그런데 여기에서 '에브라'이란 '에브라다'와 함께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3) 한편 '에브라 사람'이란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다(삿 12:5;삼상 1:1;왕상 11:26).  
 (4) 본서의 저자는 이러한 혼돈을 막고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 사람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중복해서 표현하였다.

6. **㉠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겪은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3-5절)**

- ㉠** (1)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피신한 나오미 가정은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등 베들레헴에서 보다 더 큰 환난을 겪게 되었다.  
 (2) 이러한 사실은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버린 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음을 말해 준다.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생활 중에 당하는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벰전 3:17;4:13, 16).

7. **㉠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6절)**

- ㉠** (1) 나오미는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긴 했지만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먹을 것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출 16:15-31;신 2:7;왕상 17:6, 16;19:6;왕하 3:20;4:6;7:8) 알게 되었다.  
 (2) 그리고 나오미는 이러한 소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권고(眷顧), 즉 돌보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임을 말해 준다.  
 (3) 따라서 그녀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혼자 남게 된 외로움이나 양식 걱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4) 결국 나오미는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베들레헴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5) 우리들도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마 6:25) 영혼의 양식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신 8:3;마 6:25-33;눅 12:22-31).

8. **㉠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권고했는가? (8, 9 절)**

- ㉠** (1)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이나 외로움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하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2)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철저히 이타주의(利他主義)적이며 헌신적인 인격의 소유자임을 나타내 준다.  
 (3) 반면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권위적인 입장에서 맹목적인 복종만 강요해 왔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고부간(姑婦間)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다.  
 (4) 그러나 시어머니 입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태를 본받지 말고 나오미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아랫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9. **㉠ 나오미의 권면에 두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10-18절)**

- ㉠** (1) 두 며느리는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동행하기를 원했다.  
 (2) 그러나 후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다(14절).

- (3) 이러한 오르바의 행위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신약의 성도에 대한 모형이며 칭함을 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한 자와 같다(마 22:14).
- (4) 반면 간곡한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편 단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르는 룓의 태도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형이다.
- (5) 이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축복을 내리신다(참조, 4:10-22; 마 10:28; 16:24; 막 8:34; 눅 9:23; 14:27).

10. **㉠** 나오미는 어떤 말로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시켰는가? (11절)

- ㉠** (1)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나의 태중(胎中)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라고 반문(反問)하듯 말했다.
- (2) 여기에서 남편도 없는 늙은 나오미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아직까지 젊은 두 며느리들이 자신 때문에 회생되지 않도록 배려한 모정(母情)을 의미한다.
- (3) 한편 본귀절에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결혼 풍속 중에서 계대 결혼(繼代結婚, levirate marriage)의 관습을 찾아 볼 수 있다.
- (4) 즉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한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과부가 된 형수나 재수와 결혼해야 되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죽은 형제의 후사가 되게 했다(신 25:5, 6).
- (5) 만약 살아 있는 형제가 너무 어리면 남아 있는 과부들은 그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참조, 창 38장).

11. **㉠** 환난을 당한 나오미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13절)

- ㉠** (1) 나오미는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견디기 힘든 환난을 여러 번 겪었으나(3, 13, 20, 21절),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끝까지 그분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였다.
- (2) 이러한 나오미의 태도와 신앙은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 '욥'에 (참조, 욥 1:13-21; 2:10; 6:10; 약 5:11) 견줄 만하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 (4)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환난 가운데 있는 뜻을 깨달아 담대하게 역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참조, 욥 19:1-27).

12. **㉠**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룓의 태도는 어느 정도로 강경했는가? (14절)

- ㉠** (1) 본절에서는 룓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그를 붙좃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 (2) 또한 KJV에는 '그러나 룓은 그녀에게 굳게 결합되어 있었다' (but Ruth clave unto h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시모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 (3) 그런데 여기에서 '붙좃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베카>로서 '찰싹 붙다' (cling)라는 뜻이며,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stick)를 말한다.
- (4) 한편 이 말은 고대의 결혼을 묘사할 때 쓰였던 말로서 예를 들면 창 2:24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말에서 '연합한다'라는 말과 같다.
- (5) 이와 같이 룓은 마치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해 연합하는 부부처럼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앙으로 이어졌다(16절).

13. **㉠**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어디로 갔는가? (15절)

- ㉠** (1) 그녀는 나오미에게서 떠나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 (2) 여기에서 '그 백성'은 모압 백성을 가리키며 '그 신'은 모압 사람이 섬기던 '그모스' 신을 말한다.
- (3) 한편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은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졌다(민 21:29; 렘 48:46).

(4)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우매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왕하 3:27).

(5) 이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위해 돌아간 오르바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출 20:3-5).

**14. Q** 나오미가 '너도 동서(同孀)를 따라 돌아가라고 했을 때 뜻은 자신의 결심을 어떻게 밝혔는가? (15-18절)

**A** (1) 첫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유숙(留宿)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16절)라고 하면서 자신의 굳은 결의를 보였다.

(2) 둘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6절)라고 했는데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믿음대로(마 9:29)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4:22).

(3) 셋째, 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7절)라고 말하면서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모형이다.

(4)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17절)라고 하며 비장한 맹세(盟誓)를 했다.

(5) 이와 같은 뜻의 결단은 철저한 자기 회생과 참된 신앙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었다.

(6) 오늘날 며느리 입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뜻의 효심(孝心)과 신앙을 본받아 시어머니를 섬길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출 20:12).

**15. Q**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A** (1) 뜻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은 '여자의 후손'(창 3:15), 즉 '아브라함의 자손'(대하 20:7; 마 3:9; 눅 19:9; 요 8:33, 37; 갈 3:29; 히 2:16)이 되고자 하는 신앙적 열망이었다.

(2)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그녀는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을 초월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할 수 있었다.

(3) 또한 그녀는 자기 민족의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호와의 날개(시 17:8; 36:7; 57:1; 61:4; 63:7)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했다(2:12).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뜻과 같은 신앙을 고백할 때 혈과 육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마 16:17).

**16. Q** 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 (18절)

**A** (1) 뜻의 결심은 자신의 체면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혹은 어떤 관습에 따른 의무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데서 기인된 것이다.

(2)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민 16:7; 신 7:6; 14:2; 18:5; 사 14:1; 45:4; 막 13:20)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3) 나아가서는 며느리에게 매사에 모범이 되는 시어머니의 행동과 인격적 감화를 통해 언약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었다.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뜻의 결단에 더욱 굳은 확신을 준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깨달은 데 있다.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담대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뜻과 같은 신앙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해야 한다.

17. **㉠** 롯의 결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8절)

- ㉠** (1) 롯의 결심은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만약 그녀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오르바처럼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15절) 돌아갔을 것이다.
- (2) 또한 그녀는 육체적인 혈통보다는 영적인 관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방인인 모양 속속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었다.
- (3) 이와 같은 롯의 결심을 통해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의 교훈을 알 수 있다(롬1:17).

18. **㉠**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불러 달라고 요청했는가? (19, 20절)

- ㉠** (1)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로 불러 주기를 요청했다.
- (2) 여기에서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으로 '쓰디쓴 경험을 한 자'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나오미가 자신을 이렇게 불러 달라고 한 이유는 모압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극도의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이었으므로 '기쁨'이란 의미를 가진 '나오미'란 이름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 **㉠** 나오미가 과거와 현재의 자기 상태를 비교하여 묘사한 '풍족하게'와 '괴롭게 하셨거늘'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여기에서 '풍족하게'란 말은 돈과 소유가 많아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을 소유했기에 풍족하다는 뜻이다.
- (2) 한편 '괴롭게 하셨거늘'은 70인역과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 '천하게 하다'(hum-bled)로 되어 있으며 KJV에는 '괴롭게 하다'(afflicted)로 되어 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 주었다'(공동 번역)는 뜻이다.

20. **㉠** '나를 징벌하셨고'란 무슨 의미인가? (21절)

- ㉠** (1)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나 비>인데 '거슬러 증거하셨다'라는 뜻이다.
- (2) 공동 번역에는 '나의 허물을 들추어 내셨다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한 징벌을 가리킨다.
- (3) 한편 70인역에서는 '그가 나를 낮추셨다'로 되어있으나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다만 그 의미의 의역일 뿐이다.
- (4) 나오미는 여기서 자기가 당한 환난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며 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21. **㉠**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는 언제쯤인가? (22절)

- ㉠** (1) 그들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 (2)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보통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추수했다(2:23). 팔레스틴의 보리 추수는 일반적으로 4월 말경에 시작되었으나(수 3:15) 고원 지대에서는 5월 또는 6월 초순이 되어야 비로소 추수가 시작되었다.
- (4) 또한 보리는 팔레스틴의 주산물 중의 하나로써 주로 말이나 노새의 먹이로 경작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식용으로 사용했다.
- (5) 한편 밀 추수는 보리 추수보다 약 4주 늦게 시작된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첫 소산은 여호와께 바쳤다(레 23:10).

## 제 2 장 룯이 보아스를 만나다

단락구분 1-3 룯이 이삭을 주으러 가다 / 4-12 보아스가 와서 룯에게 친절히 말하다 / 13-16 룯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다 / 17-23 룯이 보아스의 친절을 시모에게 말하다

1 나오미의 남편 엘리엘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찌어다 하매

3 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엘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뉘 소녀냐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내이다

8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10 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3 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볍은 곡식을 주매 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 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 또 그를 위하여 줍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19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룯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내이다

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이니라

21 모압 여인 룯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22 나오미가 자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3 이에 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라.

- Ⓐ (1) 시모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롯은 시모를 공궤(供饋)하기 위하여 들에 나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1-3절) 마침 추수를 둘러보고 있던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4-23절).
- (2) 우리는 본장을 통해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일과 같이 인간의 눈에는 '우연' 처럼 보이는 일도 실상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하게 된다.
- (3) 이처럼 이방 여인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1절)
- Ⓐ (1) 보아스는 베들레헴 근교에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지주(地主)로서 (참조, 3-5절)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는 말이다.
- (2) 또한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그의 계보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4:18-22).
- (3) 보아스는 광야에 있을 때 유다 지파의 한 방백이었던 나손의 손자였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서 난 살몬의 아들이었다.
- (4) 한편 시리아 역에 의하면 그는 '율법에 있어서의 유력자'였음을 알 수 있다.
3. Ⓒ 본절에서 보아스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절)
- Ⓐ (1) 본절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 KJV에서는 이 말을 '부유한 자' (a mighty man of wealth)라고 번역되었으며 공동 번역에서도 같은 의미인 '유력한 재산가'로 나와 있다.
- (2) 한편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큰 용사(히, 기보르 하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용맹스러운 영웅'이란 뜻으로서, 이 말은 보아스가 적들과의 투쟁을 통해 유명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이러한 관점에서 롯이 저자가 보아스를 '영웅적이며 부유한 지주(地主)'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4. Ⓒ 롯의 효성은 어떠한 것인가? (2절)
- Ⓐ (1) 롯은 바깥 출입을 할 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시모에게 고하였다(2절).
- (2) 또한 그녀는 시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종일 부지런히 일했다(7절).
- (3)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자기에게 먹으라고 주는 음식을 다 먹지 아니하고 남겼다가 시모에게 드렸다(18절).
- (4) 이러한 롯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해 보아스는 롯을 처음 대했으나 이미 롯의 효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11절).
- (5) 또한 롯이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지극한 효성이 남들에게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15, 16절).
- (6) 이와 같이 롯이 그녀의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을 우리는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5. Ⓒ 나오미가 받은 위로는 어떠한가? (2절)
- Ⓐ (1) 나오미는 극히 외롭고 곤고한 여자였으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을 때 며느리 롯이 끝까지 그녀를 봉양하게 되었고 또한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척이 나타나 그녀를 위로하였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위로를 받게 된다.
- (3) 이처럼 롯이 받은 위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생과 같은 우리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위로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마 11:28; 뱀전 5:7).

6. **㉠** 뜻은 본절에서 시어머니에게 무엇에 대해 청하고 있는가? (2절)

- ㉠** (1) 뜻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사를 줘겠나이다' 라고 청했다.
- (2) 이것은 자신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이며 또한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이다.
- (3) 한편 뜻이 이러한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리 추수할 때이며 (1:22) 또한 그 당시 이삭 줍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진 율법적 규례이기 때문이었다(레 19:9, 10; 23:22; 신 24:19).
- (4) 그러나 이러한 이삭 줍기에도 상당히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였는데 뜻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뜻의 교훈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빌 2:3) 헌신적인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엡 4:12).

7. **㉡** 보아스의 신앙 인격은 어떠한가? (4-9절)

- ㉡** (1)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으로 와서 먼저 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와 축복을 빌고 일꾼들도 그에게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했다(4절).
- (2) 이런 보아스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 인격자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 (3) 또한 보아스는 뜻을 발견한 후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보아스의 신앙 인격이 그의 믿음과 덕망을 통해 친절로 나타난 것이다.
- (4) 그리고 그녀를 순수한 마음으로(참조, 3:12) 자상하게 보살피 준 것을 볼 때 순결하고 온정이 넘치는 성품의 소유자였음도 함께 알 수 있다.

8. **㉢**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집'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7절)

- ㉢** (1) 먼저 KJV에는 '집'이 '가옥' (house)으로 번역되어 있다.
- (2) 그리고 커버데일(Coverdale)역에는 '집에서 쉰'을 '잠간 동안 집에 가곤 했다' 라고 하여 '집'이란 말이 성읍에 있는 나오미의 주택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았다.
- (3) 한편 공동 번역에는 '집에서 쉰'이란 말을 생략하고 '앉지도 않고' 라고 의역하였다.
- (4) 그런데 본문에 있는 '집에서'란 말의 히브리어는 <하 바이트>로서 여기서는 '임시적인 오두막', '장막', '움막' 또는 '주인이 낮에 방문하거나 밤에 지칠 때 편의를 주는 시설'을 말한다.

9. **㉣** 보아스는 뜻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가? (8, 9절)

- ㉣** (1) 먼저 그는 '이사를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8절)고 함으로써 한 곳에서 힘들지 않게 이사를 줘도록 해주었다.
- (2) 그리고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9절)고 했는데 이는 금방 베어 낸 자리에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 (3) 한편 자기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뜻을 '건드리지 말라' (9절)고 명령함으로써 남자들로부터 그녀의 안전을 지켜주었다.
- (4) 또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고 특혜를 줌으로써 그녀가 이사를 줍는 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 (5) 이러한 보아스의 친절이 더욱 값진 것은 그의 행동이 한 여인에 대한 이성적(異性的) 관심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데 있다(참조, 3:7-15).

10. **㉤**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9절)

- ㉤** (1) 소년들이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말한다.
- (2) 한편 이 물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던 바로

그 우물물이었다(삼하 23:14, 15).

- (3) 이렇게 멀리서부터 물을 길어 먹었던 것은 주로 모래 땅으로 이루어진 팔레스틴 지방에는 수원(水源)이 빈약하여 우물을 많이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이삭을 줌은 자들은 소년들이 멀리서부터 힘겹게 길어온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었으나 보아스는 룯이 마음대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었다.

11. ㉠ 룯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 룯이 어떠한 여인임을 알 수 있는가? (10-13절)

- ㉠ (1) 룯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룯이 신앙과 덕행을 겸비한 여인임을 알 수 있다.
- (2) 먼저 룯이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하여 엎드려 절한 것을 볼 때(10절) 그녀는 겸손한 여성이었음에 틀림없다.
  - (3) 그리고 보아스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11절)을 들었다고 답한 사실로 보아 그녀는 효성이 지극한 여성이었음이 분명하다.
  - (4) 또한 룯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조국과 그 백성들이 믿는 신(神)을 떠나왔으므로(11절) 그녀는 '믿음의 여인'으로 불릴 수 있다.
  - (5) 마지막으로 룯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녀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13절)라는 고백을 통해 보아스가 기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12. ㉠ '땅에 엎드려 절하며'는 어떤 자세를 말하는가? (10절)

- ㉠ (1)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자세는 본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수 7:6; 사 13:20) 혹은 왕 앞에서(삼하 14:4, 22) 취하는 최대로 겸손한 자세였다.
- (2)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겸손을 표시할 때 이 자세를 취했다.
  - (3) 예를 들면 아버가일이 다윗 앞에서 취한 행동(삼상 25:23)이나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취한 행동(삼상 20:41) 같은 경우이다.
  - (4) 이와 같이 룯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준 보아스에게 최대의 경의로써 엎드려 절했던 것이다.
  - (5) 이처럼 우리들도 친절에 보답할 줄 아는 룯의 겸손한 자세를 본받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한다.

13. ㉠ '날개 아래'란 말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12절)

- ㉠ (1) 날개란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 '새의 날개'(wing of a bird)나 '옷 자락'(skirt of the loose flowing upper garment)을 의미한다.
- (2) 또한 '자비로우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시 91:1-4)을 의미하기도 한다.
  - (3)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말은 여호와와의 보호하심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4)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는 룯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그녀를 지키시고 도와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날개 아래'란 말을 사용하였다.

14. ㉠ 본절에서부터 보아스는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가? (14-16절)

- ㉠ (1) 보아스는 말만 앞세우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생활 속에서 여호와와의 율법을 실천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 (2) 룯에 대한 보아스의 세밀한 보살핌은 그의 성숙한 신앙 인격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 (3) 보아스의 긍휼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 보는' 진실한 것이었고(약 1:27; 요일 4:20-21) 따뜻한 사랑이 동반된 것이었다.
  - (4) 이처럼 그는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보아스와 같이 신실한 성도들은 불쌍한

자를 구제하기에 힘쓰기 마련이다.

15. ㉠ 본절에서 보아스는 롯에게 어떠한 공물을 배풀었는가? (14-16절)

- ㉠ (1) 보아스는 식사할 때 롯을 불러 떡을 초(醋)에 찍어 먹게 하였고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였다(14절).
- (2) 또한 '곡식 단 사이에서 즐겁게 하고 책망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롯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15절).
- (3) 뿐만 아니라 그는 롯이 더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소년들에게 곡식 단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 흩어 놓으라고 하였다(16절).
- (4)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물론 그녀를 공홀히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시어머니를 보다 잘 모실 수 있도록 한 큰 뜻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6. ㉠ 보아스가 롯에게 배운 특별한 음식은 무엇인가? (14절)

- ㉠ (1) 보아스는 롯에게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초'와 '볶은 가루'를 주었다.
- (2) 여기에서 '초'는 일군들에게 기운을 회복시켜 주는 효과를 가진 '신포도주'로서 아주 신선한 맛을 지니고 있다.
- (3) 또한 '볶은 곡식'은 곡식이 완전히 익을기 전에 이삭을 베어 불에 구운 것으로서 맛이 아주 고소한 음식이다.
- (4) 이러한 음식은 이삭을 줍는 일군들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보아스는 롯에게 이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 (5)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귀한 음식을 정성껏, 아낌없이 대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사 58:7; 18:7; 마 25:35; 약 2:15, 16).

17. ㉠ 롯이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17절)

- ㉠ (1) 그녀가 하루 동안 주운 것을 되어 보니 보리가 한 에바 정도 되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한 에바는 22ℓ, 즉 12되 정도의 분량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피단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명 칭	체 적		관계 귀절
	리터(ℓ)	되	
갑(Kab)	1.3ℓ	0.66되	왕하 6:25
오멜(Omer)	2.34ℓ	1.2되	출 16:16
스아(Seah)	7.33ℓ	4되	창 18:6
에바(Ephah)	22ℓ	12되	출 16:36
반호멜(Lethech)	110ℓ	6말	호 3:2
호멜(Homer)	220ℓ	12말	레 27:16; 겔 45:11-14

- (3) 따라서 롯이 주운 곡식은 나오미와 그녀가 몇 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 ㉠ 본절에서 나타나 있는 롯의 효행은 어떤 것인가? (18절)

- ㉠ (1) 롯은 하루 동안 주운 곡식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보여 드렸다.
- (2) 여기에서 무거운 곡식 자루를 성읍까지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 준 그녀의 태도에서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3) 또한 그녀는 점심 식사 시간에 보아스로부터 받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 (4) 그런데 그녀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자신의 배를 마음껏 채우고 그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음식을 먹은 후 따

로 시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남겨 두었다는 뜻이다.

(5) 이와 같이 자녀의 입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룯의 효행을 본받아 헌신적인 자세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참조, 마 15:4-6; 막 7:10-13; 엡 6:1, 2; 딤편 5:4).

19. ㉠ 나오미는 룯에게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가? (20절)

- ㉠ (1) 그녀는 룯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근족(近族)이니 우리 기업(基業)을 무를 자 중 하나' 라고 말했다.
- (2) 여기에서 기업을 무를 자의 히브리어 <고엘>은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 '친족', '구속자' 등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이 말은 '근족' (레 25:25)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친척이 재산을 잃었을 경우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자를 가리킨다.
- (4)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자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자를 가리키기도 한다(창 38:7-10; 신 25:5-10).
- (5) 여기에서 '기업 무를 자'는 나오미가 소유했던 토지나 혹은 그녀의 자부 룯의 소유로 남아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참조, 레 25:25) 또한 자부 룯을 취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 (6) 한편 이러한 제도는 종족 보존과 또한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토지를 영영토록 그 족속이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20. ㉠ 보아스의 은혜는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는가? (20절)

- ㉠ (1) 나오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2) 여기에서 '생존한 자'란 나오미와 룯을 가리키며 '사망한 자'란 모압 땅에서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엘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말한다.
- (3) 이와 같이 보아스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혼자남게 된 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보살피 줌으로써 친척으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했던 것이다.
- (4) 한편 오늘날 가족 구조에 있어서 가장(家長)이 죽고 집안이 몰락하게 되면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 그 유가족들을 집덩이처럼 여기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 (5) 그러나 우리들은 친척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알고(롬 12:5; 고전 12:12, 27; 엡 5:30) 보아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친족으로서의 의무(참조, 마 25:40)를 잘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1. ㉠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0절)

- ㉠ (1) 나오미는 그녀와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했다.
- (2) 이러한 나오미의 축복대로 보아스는 친족의 의무에 따라 룯과 결혼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 안에서 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서는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심을 알아야 한다(히 11:6-12, 17-34).

22. ㉠ 나오미는 며느리의 안전을 위해 룯에게 어떤 말로 권고했는가? (21-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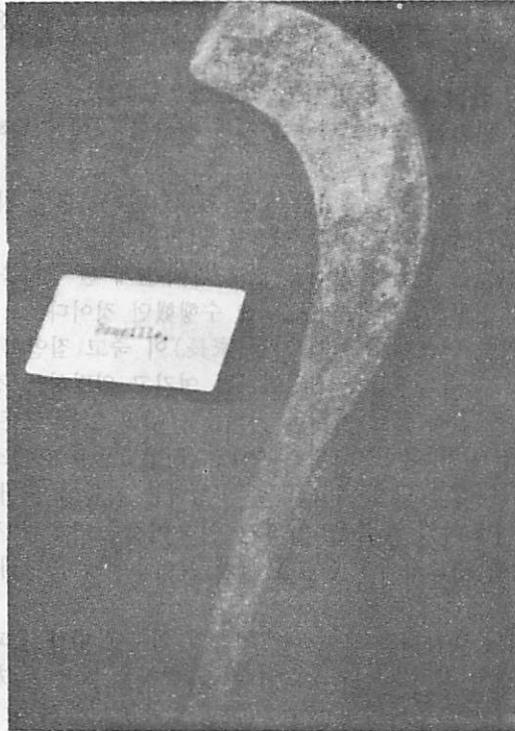
- ㉠ (1) 나오미는 룯에게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권고했다(22절).
- (2) 그런데 나오미가 이러한 권고를 한 이유는 룯이 들에 나가 남자들로부터 육체적인 해(害)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3) 룯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권고에 순종하여 추수가 끝날 때까지 소녀들과 함께 일하면서(23절) 나쁜 남자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킴으로써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고 또한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

- (4)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삼상 15:22).

### 화보자료

곡식 베는 도구. 아래의 사진은 B. C. 1200 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반원형 낫인데 라스 샴라(Ras Shamra)에서 발굴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과부나 고아가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 그곳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이 허용되었다(참조, 신 24:19-21). 이러한 율법에 따라 룯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추수하는 일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주웠던 것이다(17절).

## 제 3 장 롯을 위한 나오미의 제안

단락구분 1-5 나오미가 롯을 위하여 제안하다 / 6-7 롯이 시모의 제안대로 순종하다 / 8-13 보아스가 롯의 소원대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다 / 14-18 롯이 시모에게 지난 일을 보고하다

1 롯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랴

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높은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5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9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10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음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무를 자나 무를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14 롯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15 보아스가 가로되 네 걸음을 가져다가 퍼서 잡으라 퍼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롯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16 롯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17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18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 1. ㉠ 본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1) 나오미는 롯을 결혼 시키려고 롯에게 보아스 앞에서 취할 행동을 제시한다(1-4절).

(2) 롯은 시모의 권고에 순종하여 그날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을 물려 달라고 요청하며(5-9절) 보아스는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10-15절).

(3) 이와 같이 롯은 시모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후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 2. ㉠ '안식할 곳' 이라는 나오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1) 나오미는 며느리 롯의 참된 안식을 바랬는데 그녀가 생각하는 참된 안식은 롯이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었다(참조, 창 3:16).

(2) 나오미의 이런 생각은 자신을 버리는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어디까지나 룯의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3)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창 13:9; 14:23; 삼상 18:4; 고전 10:33; 13:5).

3. **㉠ 나오미는 룯의 장래를 위해 어떤 제안을 했는가? (2-4절)**

**㉠** (1) 나오미는 며느리 룯의 장래를 위하여 룯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2) 그녀는 룯에게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이 됨을 설명하고, 룯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후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밤이 되어 보아스가 잠자리에 눕거든 들어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했다.

(3) 그러면 보아스가 룯의 할 일에 대해 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4절).

4. **㉠ 나오미는 룯에게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누우라고 했는가? (4절)**

**㉠** (1) 그녀는 룯에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권고했다.

(2) 여기에서 이 말을 직역하면 '보아스가 깨어 그녀를 알아보도록 보아스의 겹옷을 들고'라는 뜻으로써 이러한 대담한 모험을 하라는 나오미의 말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을 감안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이런 행동을 나오미가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룯과 보아스에게 진실한 애정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4) 또한 나오미의 제안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신 25:5-10) 행하려 한 것이었다. 즉 결혼한 남자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해 주어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규례가 있었다.

(5) 그러므로 미망인은 자신과 결혼할 의무가 있는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다(신 25:7).

(6) 따라서 나오미가 룯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보아스에게 룯을 보내 청혼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5. **㉠ 룯이 보아스를 위해 준비한 것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3-6절)**

**㉠** (1) 룯은 보아스에게 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4절).

(2) 먼저 목욕을 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엡 5:26).

(3) 그리고 기름을 바른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심령이 윤택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요일 2:27).

(4) 또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마포 흰 옷을 입음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준다(계 19:8).

(5) 이처럼 우리들도 룯이 보아스를 위해 준비한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정결한 몸과 심령으로 준비해야 한다(창 35:2; 민 8:7; 느 12:30; 히 9:30).

6. **㉠ 풍속이 다른 이방 여인 룯이 감히 남의 남자의 침소에 들어가서 눕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6, 7절)**

**㉠** (1) 룯의 이런 행동은 어디까지나 시모의 제안에 순종하는 효성에서 나온 것이다.

(2) 또한 그녀는 시모 나오미를 통해서 얻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보아스가 의로운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3)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룯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히 4:16).

7. **㉠ 시모의 명을 순종하는 룯의 마음 자세는 어떠했는가? (6-9절)**

- Ⓐ (1) 룯이 나오미의 지시대로 다 실행한 것은 시모의 권고에 대해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2) 왜냐하면 룯은 이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욕심도 없었기 때문이다(참조, 10절).
- (3) 한편 그녀는 비록 이방(모압) 여인이었지만 시모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9b절).
- (4) 또한 룯은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1:16, 17) 실천하는 '신실한 태도를 보였다'.
- (5)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시모의 명을 따른 룯의 '효행에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8. Ⓞ 본절에서 룯은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9절)
- Ⓐ (1) 룯은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너를 덮으소서' 라고 요청했다.
- (2) 이 말은 상대방에게 결혼을 원한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 (3) 한편 이 표현은 겔 16:8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 (4) 또한 이러한 요청은 룯이 보아스에게 자기 일생을 맡기고 보호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기도 하다.
9. Ⓞ 본절에서 룯이 세상주의를 멀리한 점에 대하여 설명하라(10절).
- Ⓐ (1) 룯은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모에게 효성을 다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젊은 남성들에게 뜻을 두지 않았고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 줄 나 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했다.
- (3)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10. Ⓞ 룯이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10절)
- Ⓐ (1) 룯은 아직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를 좇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2) 그녀가 허영이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아스를 좇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 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기업의 상속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 (3)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성도들은(벧전 1:4)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교훈을 찾아 볼 수 있다(고후 6:14).
11. Ⓞ 룯은 베들레헬 성읍 사람들에게 어떠한 여자로 평가받고 있는가? (11절)
- Ⓐ (1)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자'로 평가받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자'란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위하 여 유익한 행동을 하는 신실(信實)한 여인을 가리킨다(참조, 2:11).
- (3) 한편 잠언에서도 '현숙한 여자'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잠 31:10-31).
- (4) 이와 같이 '현숙한 여자'의 모습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여인상(女人像)임을 알 수 있다.
12. Ⓞ 보아스의 생활 태도는 어떠했는가? (12, 13절)
- Ⓐ (1) 보아스는 룯의 행동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입장을 이해했으며 최선을 다해서 돕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은 그의 아량 있는 인품을 나타낸다.
- (2) 또한 그는 기업 무르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질서있게 처리하려고 했으며(4:1-11) 율법을 존중하여 그대로 살려고 했음을 볼 수 있다.
- (3) 결과적으로 보아스는 존경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그의 생활에 임하는 태도는 매 우 신앙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3. Ⓞ 룯이 보아스의 잠자리에서부터 나온 때는 언제쯤인가? (14절)
- Ⓐ (1) 룯은 새벽이 될 때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에 그곳에서부터 나왔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룯이 타인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킁킁할 때 나온 것은 그녀가 법도에서 벗어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 (3) 단지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행동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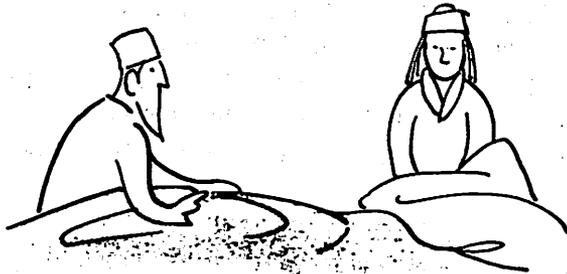
14. **㉠** 룯이 보아스에게 간청하려고 입고 간 '겉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가? (15절)

- ㉠** (1) '겉옷'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테파하트>이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베일', '면사포', '덮개' (veil)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얼굴 따위를 가리우는 데 사용되었던 너울을 의미했다.
- (2)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겉옷'은 얼굴 외에도 몸 전체를 가리는 '면박'을 뜻한다.
- (3) 예를 들면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창 24:65)라는 귀절에서의 '면박'은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베일' (veil)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얼굴 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운 것이었다.
- (4) 더군다나 룯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담을 수 있었음을 볼 때에 몸 전체를 감쌀 수 있는 너울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5) 한편 룯기(15절)에 나오는 '겉옷' (히, 미테파하트)은 사 3:22에 한 번 더 나온다.

15. **㉠** 나오미가 룯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 ㉠** (1) 나오미와 룯은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한 셈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 (2) 그러므로 나오미의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의 구원하심을 보라' (출 14:13)고 했던 것처럼 룯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따라서 나오미의 이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신앙 태도를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그녀는 룯에게 신앙에 근거한 충고를 했으며 그 충고대로 룯은 실천하였다.

본장의 요점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9절).

## 제 4 장 롯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단락구분 1-6 보아스가 기업 상속자를 만나다 / 7-8 기업 상속자가 보아스에게 기업을 인계하다 / 9-12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맞아들이다 / 13-17 롯이 오벳을 낳다 / 18-22 롯의 후손들

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며

2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십 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며

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4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내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무르리라

5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울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6 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7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울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

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12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임태케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무를 차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16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18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보아스가 10명의 성읍 장로들을 초청한 가운데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 기업 무르는 일을 의논하였다 (1-5절).  
 (2) 그런데 그 친족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보아스는 기업 무를 권리를

취하고 룯과 결혼할 것을 선포하였다 (6-12절).

(3) 결국 보아스는 룯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부인 오벳을 낳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입었다 (13-22절).

(4) 본장에서 우리는 룯과의 약속(3:13)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보아스의 신실한 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5) 이러한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2. **㉠ 보아스 당시 사람들은 '성문'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는가? (1절)**

**㉠** (1) 동방의 성문은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는데 이는 서양의 대광장이나 시장에 해당된다 (pulpit 추석).

(2) 즉 당시의 성문은 백성들의 소송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공적 업무를 위한 광장으로 사용되었다 (신 15:7).

(3) 한편 보아스는 기업 상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찍 이 성문으로 왔는데 아마 그는 베들레헬 성의 장로였을 것이다 (Matthew Henry).

3. **㉠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를 무엇이라 불렀는가? (1절)**

**㉠** (1) 그는 '기업 무를 자'를 '아무여'라고 불렀다.

(2) 그런데 이 호칭은 보아스가 그 사람을 향해 불렀던 것이라기보다는 룯기 저자의 표현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3) 한편 이런 표현은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사용되었다.

(4)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명기(明記)되지 않은 이유는 본서의 저자가 기업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굳이 후세에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에게 기업 상속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3, 4절)**

**㉠** (1) 보아스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管轄)하므로'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기업 상속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여기에서 '관할하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케라>로서 '팔 것이다'(will sell)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일차적으로 '기업 무를 자'인 '아무여'(1절)라고 불리운 사람에게 있었다.

(4) 한편 나오미가 토지를 '관할'했던 이유는 보아스로 하여금 룯과 함께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이다.

5. **㉠ '기업 무를 자'가 결정을 번복(翻覆)한 이유는 무엇인가? (4-6절)**

**㉠** (1) 그는 보아스의 기업 상속 요청에 대해 처음에는 '내가 무르리라'라고 답하므로써 동의하였다(4절).

(2) 그러나 그는 밭의 상속 뿐만 아니라 룯을 취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야 한다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기업의 상속을 포기하고 말았다.

(3) 이러한 거절의 이유는 룯을 취하게 되면 룯을 부양해야 하며 만약 밭을 산다고 해도 결국 룯의 상속자의 것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4) 즉 룯과 그 자손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하므로 자신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5) 이처럼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불리한 일 앞에서는 당연히 행하여야 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그러나 그리

스도인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는 신실함을 소유하여야 한다.

6. **㉠** '기업 무를 자'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7, 8절)

- ㉠** (1) 그는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겠다는 표시로 신을 벗었다(8절).  
 (2)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건 혹은 권리를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確定)하기 위하여 신을 벗고 이웃에게 주었다.  
 (3) 즉 신은 땅을 밟는 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신을 벗고 이웃에게 넘겨 주는 것은 재산이나 소유를 이전한다는 상징이었다(신 25:9).  
 (4) 이리하여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무를 권리를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사건이었다.  
 (5)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선히 해결된 것은 나오미의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9, 20).

7. **㉠** 기업 상속권을 양도받은 후 보아스는 참관인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9, 10절)

- ㉠** (1) 보아스는 이 상속권에 대한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해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또한 그는 말론의 아내 룯까지도 유산과 함께 기업으로 물려 받았으므로 그 유산을 차지할 후손을 낳아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겠다고, 증인들 앞에서 말했다.  
 (3) 한편 그는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는 룯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았으며 나아가서는 증인들 앞에 맹서까지 한 것은 그의 신실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대변해 준다.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보아스처럼 매사(每事)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공의(公義)롭게 행하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8. **㉠** 보아스의 맹서를 듣고 난 후 백성들과 장로들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을 빌었는가?(11, 12절)

- ㉠** (1) 그들은 먼저 보아스가 취하게 될 룯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였다(11a절).  
 (2) 그리고 보아스 역시 그녀로 말미암아 '에브랏에서 유력(有力)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有名)한' 자가 되기를 기원하였다(11b절).  
 (3) 또한 그들은 룯의 후손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주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하였다(12절).  
 (4) 이처럼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을 기원한 것은 그들 보기에 보아스가 진정한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5) 이와 같이 우리는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항상 만민들이 그를 위해 축복을 기원해 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9. **㉠** 보아스는 신약에 있어서 누구의 모형으로 상징될 수 있는가?(11, 12절)

- ㉠** (1) 보아스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상징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보아스가 룯을 취함으로 룯의 죽은 남편의 기업(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눈 땅)이 회복된 것처럼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된 것을 상징한다.  
 (3) 즉 보아스가 죽은 자의 기업을 상속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흠어진 양 떼를 모으심으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것과

같다(롬 8:17; 벤전 1:4; 2:6-8).

10. ㉠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의 계보는 (창 38장) 어떠한가? (12절)

- ㉠ (1)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창 28:1-5).  
 (2) 장자인 엘의 아내는 다말이라는 여자였는데 엘이 여호와 목전(目前)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창 38:7).  
 (3)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후사를 위하여 형수 다말에게 들어갔으나 본분을 다하지 못하므로 그도 죽임을 당하였다(창 38:9, 10).  
 (4) 그런데 유다는 아직 장성하지 않은 셋째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말을 친정에 가 있도록 했는데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부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 둘을 낳았다(창 38:12-18).  
 (5)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이다(창 38:29, 30).  
 (6) '베레스'란 '터진다'는 뜻(민 26:20; 대상 2:4; 마 1:3)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7) 이와 같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불륜의 관계로 출생되었으나 영광스럽게도 메시아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었다(18절; 대상 2:4; 마 1:3).  
 (8)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는 섭리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다.

11. ㉠ 성경에서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 예고를 받고 태어난 자들 중 누구를 들 수 있는가? (13절)

- ㉠ (1)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창 21:1-4).  
 (2) '리브가'는 아이가 없다가 남편 이삭의 간구로 복 중에 쌍둥이를 잉태하여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창 25:21-26).  
 (3) 엘가나의 두 아내 중 자식이 없던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브닌나의 대적함으로 인해 그 마음이 자주 격동함을 받아 번민하다가 여호와와의 집을 올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에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삼상 1:20).  
 (4) 본문 가운데 나오는 '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다윗의 조부 오벧을 낳았다(4:13, 17).  
 (5)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 스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 많도록 무자(無子)하다가 분향하던 제사장 스가라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의 약속을 받아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다(눅 1:5-25, 57-66).  
 (6)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하나님에 의해 예언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마 1:18-25; 눅 1:27-35).

12. ㉠ 룻이 보아스로 인하여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13절)

- ㉠ (1)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오벧'이다.  
 (2) 그는 후일 다윗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로서 결국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었다.  
 (3) 그런데 보아스가 다윗 왕의 계보 외에(17절; 대상 2:12; 마 1:5)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음을 볼 때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 ㉠ 나오미는 노년에 어떠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14-17절)

- ㉠ (1) 나오미는 처음에 시련과 슬픔을 당했으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오벧이라는 귀한 손자를 보게 되었고 손자를 양육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13절).  
 (2) 그녀는 노년에 있어야 할 축복인 명예, 사랑, 순종심 많은 며느리, 친구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14절).

- (3) 이처럼 나오미의 여생에 행복이 찾아온 이유는 그녀의 이타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 보다는 며느리 룯의 장래를 더 생각해 주었다(1:8, 9).
- (4) 한편 나오미는 룯이 '안식처'를 갖기 바랬으며 그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3:1).
- (5) 이와 같이 나오미는 시종 일관 신앙적인 태도로 모든 일을 행했으며 남을 축복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녀도 축복을 받게 되었다(2:19).

14. ㉠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룯에 대해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14, 15절)

- ㉠ (1) 그들은 룯을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子婦)'라고 나오미에게 칭찬했다(15절).
- (2) 한편 태의 열매를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간주했던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얻는 것을 크게 여겼고, 더구나 일곱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삼상 2:5; 욥 1:2).
- (3) 그런데 여기서 룯을 일곱어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는 것은 참으로 큰 칭찬으로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만큼 영광스러운 며느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4) 결국 믿음과 덕을 행하고 사모에게 효성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녀는 이웃과 화목하며 가정에 평화를 안겨 주게 되었고 또한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

15. ㉠ 성경에 나타난 족보(族譜)의 중요성을 설명하라(18-22절)

- ㉠ (1) 룯기는 다윗에 이르는 룯의 후손들을 열거함으로써 끝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 (2) 성경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족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민(選民)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특히 유다 족보는 국가적, 지역적 중대성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중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4) 또한 성경은 유다 족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며 그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 (5) 한편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마 1:1-17; 눅 3:23-38)는 기독교의 역사성을 확증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본장이 요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확정) 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7절).



**연구자료**

수혼(媾婚) 제도에 대하여. 본서에는 룻이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여 집안의 대(代)를 잇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는 본래의 수혼 제도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즉 신 25:5-10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남은 여자는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야 하는데 룻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였던 것이다. 또한 본서에서는 죽은 자의 부인과 결혼할 경우 죽은 자의 기업을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4:5) 신명기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 없다. 하지만 본서의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은 유다와 다말과의 사건(창 38장)과 더불어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수혼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녀의 남편 엘이 죽자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과 동침케 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려고 하나 오난은 자신의 임무를 회피하였다(창 38:8,9). 또 다른 동생도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갖었다. 이 사건은 그 윤리성 보다는 수혼 제도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본서의 기록에 의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더구나 기업을 무르게 되는데 이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수혼 제도와는 많이 다르다. 기업 무를 자(히, 고엘)의 의무가 첨가된 것이다. 이는 수혼 제도의 범위가 가족간에서 씨족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동족간(同族間)의 혈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융통적인 운용(運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제도는 이스라엘 여자가 다른 이방 민족의 남자와 혼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죽은 남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지키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다.